

▶ 소비자·가족자원경영분과

가계재무관리의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이 은 화(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전공 박사과정)
양 세 정(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전공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행태에 대해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재무관리는 '계획'과 '실행'부분으로 나누었고, 실행부분은 다시 소득과 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위험관리, 신용관리로 구분하여 부부간 재무관리를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역할분담형태는 '따로관리'와 '공동관리' 및 '해당없음'으로 구분하고, 공동관리는 다시 '전적으로 아내', '아내가 더 많이', '부부가 비슷하게', '남편이 더 많이', '전적으로 남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10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SAS-PC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χ^2 -test,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계획영역의 8개 문항 중 유일하게 '저축에 관한 계획'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가계에서 '전적으로 아내'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계의 비율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높았다. 소비/지출영역에서 맞벌이가계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소매의 소비/지출행동에서 '전적으로 아내'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경조금과 관련된 문항에서 '부부가 따로관리'를 하는 비율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관련 문항에서는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저축/투자영역에서 비맞벌이가계는 맞벌이가계에 비해 '전적으로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가 따로'관리하는 비율이 맞벌이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험관리영역에서 보험관련사항에 대해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조건 결정'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맞벌이가계에 비해 비맞벌이가계가 '전적으로 남편'에 의해 수행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관리영역에서 대출과 상환에 관련 된 문항에서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맞벌이가계의 비율이 맞벌이가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리'하는 비율이 맞벌이가계에서 높게 나왔다.

둘째, 맞벌이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역할비중을 t-tes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가 더 많은 비중으로 재무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역할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소비/지출영역의 소매지출결정에 관한 문항과 위험관리영역에서 보험금 납입과 영수증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문항이었고, 남편의 역할비중이 큰 항목은 자동차와 투자관련 사항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만원이하 물품결정'을 제외한 유의미한 모든 문항에서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아내의 역할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